

전남도, 의료 취약지에 간호인력 기숙사 건립한다

진도서 착공식...2026년까지 40억 투입...신안·영암 등 3곳 조성
간호·복지 인력 근무 기피 해소하고 농어촌 의료 환경 개선 기대

전남도가 의료 취약지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에 나선다. 간호인력 기숙사가 전남 농어촌의 고질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진도군에서 ‘농어촌 간호인력 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갖고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진도군 진도읍 교통리 일원에 들어서는 간호인력 기숙사는 오는 2026년까지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입, 지상 4층, 30호실 규모로 조성된다. 전남도의 농어촌 간호인력 기숙사 지원사업은 의료취약지에 간호·보건·복지 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남도는 오는 2026년까지 농어촌(영암·진도) 2개소, 섬 지역(신안) 1개소에 기숙사를 조성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영암군에 1호점 착공식을 갖은 전남도는 진도군에 이어 올해 말 신안군에도 농어촌 간호인력 기숙사를 마련한다. 농어촌지역에서의 의료인력 확보는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질에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의료인력은 수도권과 대형병원에 집중돼 있는 게 사실이다. 전남은 의사가 고사하고 간호사 또한 대도시권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인구 1000명당, 간호수 수

는 수도권에 5.5명인데 비해, 전남을 비롯한 농어촌은 3명으로, 36%에 불과하다. 특히 간호인력 기숙사 3호점에 예정된 신안군의 경우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수가 2.3명으로 전국 평균 4.9명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전남도가 최근 2년간 의료 취약지 근무를 조건으로 예비 간호사들에게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중도 이탈한 간호사가 2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간호인력 외에도 ‘시니어 의사’, ‘치매 관리주치의’, ‘공공심야약국’ 유지에도 애를 먹고

있다. 전남도는 농어촌 의료인력 기숙사가 완공되면 인구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비해 열악한 간호·복지 인력의 근무 기피를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농어촌 지역 의료·복지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촌 기숙사 건립사업을 통해 간호인력의 역외 유출을 막고 청년인구를 유입해 지역소멸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적극적 행정 지원으로 조기 착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염전근로자 실태조사 중간 보고회

근로환경 개선 방안 논의...교육·심층상담 등 조사 영역 확대키로

전남도가 전남 염전에서 노동자 착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염전근로자 실태 조사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남도는 1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개최한 염전 근로자 실태 조사 중간 보고회에서 추진상황과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염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도내 염전 근로자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염전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취업 경로와 근로·주거 환경, 건강상태와 인권 침해 여부 등을 면접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직접 확

인해보겠다는 것이다. 전남연구원이 수행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는 전남도를 비롯, 영광·신안군 등 염전이 위치한 지자체 내 관련 부서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전남경찰청, 도 인권위원회, 전남연구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염전 근로자의 인권침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면접조

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하자 사·군 및 경찰청, 고용노동부, 시군,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인권 교육’ 운영과 ‘염전근로자 안심 숙소 및 쉼터’ 지원, 각 염전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2022년부터 염전 근로자 근로환경 및 인권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예산을 늘려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교육과 심층상담 등 조사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염전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힘 모은다

전남바이오진흥원-전남대 그린바이오혁신융합대학사업단 협약

전남바이오진흥원(원장 윤호열)은 지난 13일 진흥원에서 전남대 그린바이오혁신융합대학사업단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발굴 및 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산업화 추진을 위한 인프라 공유,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전남바이오진흥원 관계자는 전남의 그린바이오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하고 연구 성과의 실질적 산업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은 협약을 계기로 ▲그린바이오 벤처캐피탈 활성화 ▲인력양성 기반 구축 ▲창업 및 산업화 지원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불안한 구조물 신고하세요

도,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운영

전남도가 시설물 및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요청을 무료로 진행한다. 전남도는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는 도민으로부터 안전점검 요청이 접수되면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다. 점검을 통해 시설물 소유주에게 위협의 정도를 비롯, 보수, 보강 방법 등도 제안한다. 안전점검 청구 대상은 단독주택과 마을회관 등 민간·공공 건축물과 교량, 축대, 옹벽 등 토목 구조물 등이다. 다만 공사중인 건물이나 분쟁 중인 시설, 법적 의무점검 대상시설, 민원 발생 시설 등은 제외된다. 도민 안전점검 신청은 전남도 사회재난과 안전점검(전화 061-286-3040-3045, 팩스 061-286-4737)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전남도 누리집(http://jeonnam.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 복합문화공간 ‘문화마루’ 개관

전남도는 지난 13일 전남도립도서관 4층에서 ‘책 속에 전남의 미래가 있습니다’를 주제로 문화마루 개관 기념행사를 열었다. 문화마루는 전남도립도서관 4층 유희공간(1252㎡)을 활용해 북카페, 커뮤니티 공간, 체험 및 전시 공간으로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문화마루’ 개관 행사에 참석해 도서관 발전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도, 쑥부쟁이 신제품 개발...아토피·비염 효과

전남도가 아토피와 알레르기 비염에 효과가 있는 쑥부쟁이<사진>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10일 “국내 최초로 쑥부쟁이 신제품 ‘루비채(Rubichae)’를 개발하고, 품종보호 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제품 ‘루비채’는 10a(아르)당 생체수량이 재래종 대비 38% 증가한 1.6t, 건물중량은 213kg이며, 기능성 성분인 루틴 함량은 2.8mg/g으로 재래종보다 1.5배 높다. 또 생육 속도가 빠르고 병해에 강해 재배 안정성도 뛰어나다. 쑥부쟁이의 주요 기능성 성분인 루틴은 아토피와 알레르기 비염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재래종은 생산성 및 기능성 성분 함량이 낮아 산업화와 표준화가 어려웠는데, 신제품 개발로 건강 기능성 원료의 국산화와 지



역 특산물 산업화 기반 마련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는게 농가원 설명이다. 쑥부쟁이는 건나물과 분말 형태로 비빔밥 키트, 머핀, 쿠키, 차 등 다양한 가공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코 건강 개선 면역 제품과 아토피 치료용 기능성 제품도 출시돼 판매 중이다. 장흥군은 2ha 규모의 기능성 원료 재배단지를 조성했고, 구례군 역시 1ha 규모의 가공원료 생산 재배지를 조성해 산업화 기반 강화에 나선 상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익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화재보험협회
Korea Fire Insurance Association

해상보험협회
Korea Marine Insurance Association

IGFA 보험GA협회
보험사기방지국민운동본부